

# 계획경제의 대안으로서의 북한 시장의 전망

2011. 9. 9

조동호  
이화여대

**북한의**

**생존전략 새판짜기**

---

## 김정일의 중국 방문

- 김정일은 최근 일 년 사이에 세 번이나 중국을 방문
  - 김정일의 고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일
- 이에 따라 경제협력 강화, 후계 인정 등 방중 목적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제기
- 그러나 **보다 큰 틀에서 김정일 방중의 의미를 분석**해야 할 필요

- 경제협력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김정일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될 것
  - 이미 두 차례의 방중과 중국 고위층의 평양 방문 등을 통해 경제협력의 기본 방향과 내용이 결정
- 김정은으로의 후계구도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
  - 중국의 이해는 필요하겠지만, 승인은 과장
  - 또한 내정 불간섭은 중국 외교정책의 핵심인데다가 이미 세습을 양해한다는 입장 표명
  - 북한의 자존심으로 볼 때도 승인을 받는 모양새를 보이지는 않을 것
- 결국 김정일의 방중은 새로운 생존전략, 새로운 외교전략을 짜기 위한 것일 가능성

## 21세기형 balance 외교의 시작

- 지난 20여년 동안 북한의 생존전략은 **북미 관계 정상화를 통한 체제보장의 모색**이라고 요약 가능
- 냉전의 종식 이후 사회주의는 무너지고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등장
  - 중국, 러시아는 오히려 한국으로의 접근 가속화
- 북미관계의 정상화만이 체제보장의 가장 확실한 방책으로 인식
  - 북한으로서는 적절하고 당연한 전략

- 그러나 이제는 국제정치 질서가 변화
  - 중국의 명실상부한 G2 부상에 따라 미국과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분점하는 상황
  - 중국 부상의 가속화와 미국의 상대적 쇠퇴가 예견
- 이에 따라 북한 지도부는 **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을 활용하는 생존전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으로 평가**
  - 과거 김일성이 중소 간 balance 외교를 하던 것처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**21세기형 balance 외교**를 하려는 셈
  - 북중이 가까워지면 아태 지역에서의 패권 유지를 희망하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유화적인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한국과 일본도 미국의 정책을 따라올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

## 중국의 이해도 일치

- 중국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의 비전으로 소강사회의 건설을 설정
  - 제12차 5개년계획에서 복지 강조, 부민공정(富民工程) 시작
- 따라서 앞으로도 경제성장은 최고의 화두
  - 지금까지는 WTO 가입 등 전 세계가 지원
  - 그러나 앞으로의 경제성장은 지난 30년 동안의 경제성장에 비해 매우 어려운 작업
  - 내부적으로는 고속 경제성장 과정에서 쌓인 부정부패, 지역간 격차, 빈부 문제, 분리독립, 정치적 민주화 요구 등 해결하는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중국 부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제에 대응해야 할 필요

■ 지난 30년이 평탄한 길에 뒷바람까지 불어준  
형국이라면, 앞으로 10년은 거센 맞바람 불어  
치는 험난한 오르막길인 셈

- 결국 경제성장과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는 동시에 이  
를 위해 안정된 외교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
-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 국익 차원에서 필요

■ 바로 여기에 북한과 중국의 이해가 일치

- 한반도에 불안정 요인이 생기면 미국의 개입이 불가  
피하고 이는 중국의 국익과 당면한 목표 추진에 부정  
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
- 북한의 입장에서 balance 외교를 통해 더 커다란  
이익을 얻을 가능성

## 물론, 부분적 견해 차이는 존재

- 북한과 중국이 모든 분야에서 완벽한 견해 일치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
  - 김정일 방중시 후진타오 주석과 김정일의 연설문의 차이에서 드러나듯, **북한의 개방 정도와 북핵 문제 등에서는 조율이 미흡**
  - 러시아 방문은 이와 관련한 것으로 해석
  - 하지만 큰 틀에서 북한과 중국이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
- 따라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간다는 우리의 대북정책도 재검토할 필요
  -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과거에 비해 **훨씬 더 복잡한 시선**으로 북한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

# 북한의 개방과 시장의 향후 전망

---

## 강성대국과 김정은 체제의 출범

- 강성대국 선언은 김정일 시대의 마감과 김정은 체제의 본격적 개막을 의미
- 김정은 체제에서 단기간 내에 북한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은 희박
- 오히려 **점진적인 개방을 통해 당분간은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**이 농후
  - 물론 이는 단기 전망일 뿐이며, 장기적으로는 북한 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없이는 체제의 존속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을 것

# 김정은 체제의 성장 슬로건

- 새 시대의 새 지도자는 새로운 슬로건을 필요
  - 선군은 대내외적으로 북한정권이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선택한 생존논리
- 그러나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처한 상황은 당시에 비해 크게 개선
  - 더욱이 강성대국을 선포한 상황에서 생존 슬로건은 더 이상 무의미하며, 성장, 발전의 슬로건이 필요
  - 구체적으로 새로운 슬로건이 어떻게 설정되든, 이는 개방을 통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
- 결국 김정은 체제는 **조심스럽게 개방을 확대**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

## 중국의 개방 요구

- 북중관계 강화를 중국이 환영한다고 해도 중국이 원하는 북한은 현재와 같은 북한이 아님
  - 미국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는 북한의 불안정성 심화는 중국으로서는 방관하기 곤란
- 중국은 북한이 폐쇄적인 정책을 유지할 경우 북한의 불안정 요인이 커질 것이라고 판단
  - 그에 따라 이미 **북한에게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**하고 있으며, 시간이 흐를수록 **더욱 강화**될 것으로 예상
- 중국의 정치적/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김정은의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

## 시장의 확대

- 이미 상당수의 북한 주민은 시장을 떠나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
  - 공급능력의 부족으로 김정은 체제에서도 당분간은 시장을 목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
- 시장의 효율성을 경험한 주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확대를 요구하게 될 것으로 전망
- 시장의 확대는 현재 북한경제의 상황으로 볼 때 **필연적으로 개방의 확대로 연결**
  - 게다가 성장을 추진해야 하는 김정은 체제로서는 개방을 통해 시장의 작동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존재

# 개방과 계획경제의 공존 가능성

- 북한의 개방은 시장용과 계획용으로 구분 가능
  - 시장에서의 판매를 위한 개인과 기업의 수입
  - 계획부문의 정상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 건설, 지원 및 외화 수입
- 그런데 북한의 개방 확대는 **필연적으로 시장 확대 및 계획경제와의 갈등을 초래할** 가능성
  - 동유럽국가의 경험에서 보듯 시장은 그 자체의 동력으로 인해 점차 확대
- 더욱이 북한이 계획경제의 PDS를 복원할 능력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

# 결국 시장은 계획경제를 점차 대체

- 북한의 시장은 점차 제도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
  - 시장에서 부를 축적하는 신규 권력층의 이해도 존재
  - 2009년말 무산시장의 사례에서 보듯 ‘먹고 사는 문제’가 달린 북한 주민의 필사적 요구도 무시하지 못할 것
- 북한당국은 시장 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나 근본적으로 시장을 폐쇄하기는 불가능
- 결국 시장과 계획의 공존 하에 우여곡절을 겪으며 시장이 점차 계획경제를 대체해 나갈 것

**감사합니다**

